

한국어 통합 교재에 나타난 발음 내용의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n Pronunciation Contents in Korean Integrated Textbooks

박은하

대구대학교 한국어문학과

Eunha Park(eunha0530@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한국어 통합 교재를 대상으로 발음 교육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교재에 나오는 음운 체계, 음운 규칙, 발음 기술 및 표기, 그리고 발음 연습 등의 발음 항목들을 비교·분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로 나온 발음 내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나타내보면, 음운 체계에서는 자음과 모음의 제시 순서가 교재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자모의 제시 순서에 대한 표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교수 가능성 및 학습 용이성은 물론이고 교재 및 학습 목적을 고려해서 표준안을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음운 체계의 제시 방법에서 의사소통 관점과 한국어 억양의 기능을 고려했을 때 억양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기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음운 규칙에서도 음운 체계와 마찬가지로 제시 순서가 교재마다 다르게 나왔는데 제시 순서를 정해야 하며 어떤 음운 규칙을 교재에 제시할 것인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음운 규칙을 설명할 때 용어 사용은 가능한 한 하지 않고 필수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을 기술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발음 내용의 기타 사항에서는 발음을 위한 예를 단어로 제시하는 점과 다양한 연습문제가 없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발음 교육을 위해서는 문장이나 대화문으로 제시하고 발음 연습을 위해 다양한 연습과 다른 언어 기능과 연계할 것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한국어 발음 교육 | 한국어 통합 교재 | 교재 분석 | 음운 체계 | 음운 규칙 | 발음 기술 및 표기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phonetic items such as the phonemic system, phonological rules, and pronunciation descriptions and notations incorporated in the textbooks. Based on our analysis results, we point out the problems related to pronunciation education, and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First, the presentation order of consonants and vowels in the phonological systems sections of each textbook was different. We recommend that a standard for consonant and vowel presentation order should be prepared, but that this standard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specific purpose of the textbook; the learning strategies and goals,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teaching and learning. Second, similar to phonemic systems, the presentation order of phonological rules was different for each textbook. To create a standard order for phonological rules, we have to standardize the order of presentation of rules and determine which rules should be presented. Furthermore, when describing phonological rules, the content should be described in common and essential terms as much as possible without the use of jargon. Third, in other matters of pronunciation, there were problems such as examples for pronunciation and lack of exercises. Regarding this, we propose to provide sentences or dialogues as examples for pronunciation, and to link these to various activities and other language functions for pronunciation practice.

■ keyword : | Korean Pronunciation Education | Korean Integrated Textbooks | Textbook Analysis | Phonological System | Phonological Rules | Pronunciation Description and Notation |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어 교육에서 교수자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은 발음을 중요하게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내용에 비해 발음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발음 교육을 위한 발음 수업이 따로 마련되어 있거나 발음 교재를 가지고 발음 수업을 하는 교육 기관은 비교적 찾기가 힘들다. 통합 교재를 가지고 한국어 수업을 하는 기관이 대부분이라 특히 발음만을 위한 수업을 실시한다거나 발음 수업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는 등의 일은 거의 없다. 그래서 실제 발음 교육은 교사들이 통합 교재에 나오는 발음 영역의 내용을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것이 고작이다. 교실에서 주로 학습자들이 잘 안 되는 발음을 교사가 하는 발음대로 따라하는 식의 연습을 한다. 그리고 학습자에게 가르치는 음운 규칙 등은 교사의 직관 및 경험에 따른 설명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다.

발음은 초급 단계에서부터 학습하지만 한국어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결코 발음을 소홀하게 여기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발음은 모국어의 간섭으로 발음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잘못된 발음의 고착화로 발음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발음은 한국어의 유창성과 정확성에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지속적이고 꾸준한 연습을 해야 함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통합 교재를 가지고 기능 교육을 포함한 어휘와 문법 위주의 수업이 진행된다. 그래서 어휘와 문법과 같은 내용 영역 및 언어 기능 연구에 비해 발음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어휘와 문법에 대한 표준화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음에 대한 이런 시도가 없다[1][2].

이에 본고는 한국어 통합 교재를 대상으로 교재에 나타난 음운 체계, 음운 규칙, 발음 기술 및 표기, 그리고 발음 연습 등의 발음 항목들을 비교·분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통해 드러난 발음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의 검토

발음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비해 한국어 교육에서 발음과 관련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앞서 언급하였는데 김상수·송향근(2006), 정명숙(2011), 그리고 최정순(2011)도 이에 대한 지적을 하였다[3-5]. 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한국어 발음 교육은 발음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이들 대부분이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이나 방법도 중요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학습을 위한 매개체는 바로 교재이다. 그러므로 교재에서 발음 내용이 어떻게 제시되고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부족한 점 및 개선 점을 알아보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본다.

본 연구와 관련 있는 기존 연구로는 김영선(2006), 윤정기(2007), 김은애 외(2008), 박정은·이주희(2008), 오광근(2008), 박기영(2009), 양명희(2009), 백소영(2010), 허유라·박덕유(2012), 유현정(2013), 조남민·손달임(2014), 김현아(2015)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발음 교재와 한국어 통합 교재들을 분석하고 한국어 발음 교육과 관련하여 논의한 것들로, 김은애 외(2008), 박정은·이주희(2008), 김현아(2015) 세 편은 발음 교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다[6-8]. 한국어 통합 교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김영선(2006), 윤정기(2007), 오광근(2008), 양명희(2009), 박기영(2009), 백소영(2010), 허유라·박덕유(2012), 유현정(2013)이다. 김영선(2006), 박기영(2009), 백소영(2010), 그리고 허유라·박덕유(2012)는 한국어 통합 교재와 발음 교재를 함께 분석하였고[9-12] 윤정기(2007), 오광근(2008), 양명희(2009), 유현정(2013)은 한국어 통합 교재를 조사하였다[13-16].

한국어 통합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윤정기(2007)는 발음 교육 중에서 음운 규칙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어 통합 교재를 분석하였다[13]. 오광근(2008)에서는 자모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어 통합 교재의 기초 단계를 검토하였다[14]. 통합 교재 20여 종을 대상으로 교재의 기초 단계에서 사용된 용어와 개념의 일치 여부를 고찰하고 초급 학습자의 자모 교육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였다. 양명희(2009)에서는 한글 자모와 발음의 교육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였다[15]. 유현정(2013)은 한국어 초급 교재에 나타나는 발음 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내용 측면과 방법 측면으로 나누어 개선점을 지적하였다[16]. 조사 대상의 한국어 교재를 명시하지 않아서 제시한 표들을 봐도 몇 중, 몇 권의 교재를 대상으로 삼았는지 알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선행 연구들은 우선적으로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통합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는데 개정 이전의 통합 교재이거나 새로 나온 교재가 아닌 구(舊) 교재인 점이 본 연구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의 결과로 인해 발음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통합 교재도 이를 반영하거나 변모하였으리라 짐작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개발된 발음 교재는 총 3종밖에 없고 앞에서 언급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이 발음 교재를 분석한 연구가 이미 여러 편이 존재한다. 게다가 3종의 발음 교재 중 하나는 요즘 출판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개정되었거나 새로 나온 한국어 통합 교재에서 발음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지를 살펴봐야 한다. 또한 앞에서 기술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초급 교재에 나오는 자모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다룬 점이 주요 특징이다. 발음 교육은 초급 단계에서도 중요하지만 중급 및 고급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초급 교재나 자모 교육에 한정시키지 말고 초급부터 중급과 고급까지 발음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발음 내용을 분석함에 있어서 음운 체계, 음운 규칙, 그리고 말하기와의 연계성 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살펴봐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에 개정되었거나 새로 나온 한국어 통합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삼으며 기존 연구와는 달리 언어 수준을 초급으로 국한하지 않고 중급과 고급에도 발음 내용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이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발음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서 모음, 자음과 발음 용어를 비롯하여 음운 체계, 음운 규칙, 다른 언어 기능과의 연계성 등 다양한 분석 항목을 설정하여 조사함으로써 최근에 나온 한국어 통합 교재에서의 발음 내용에 대해서 비교·분석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근의 한국

어 통합 교재에 나오는 발음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초급 교재는 물론이고 중급과 고급 교재에서도 발음 교육 내용을 지면에 할애하여 발음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 잘 다루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다룬 분석 항목들을 설정하여 분석 대상의 교재에 나오는지 여부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II. 본론

1. 교재 선정 및 분석 항목의 설정

한국어 통합 교재는 대학의 부설 기관인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출간된 것이 대부분으로 이 교재들은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을 목적으로 언어 기능 중심으로 통합된 교재를 말한다. 이러한 통합 교재에서 발음은 초급 교재의 초반에 모음, 자음, 음절 구성, 받침 발음의 기본적인 음운 학습으로 나타난다. 이후에 나오는 발음 내용에서는 음운 변동이 반영된 단어를 따로 배치하고 음운 변동으로 인한 표기와 상이한 발음 기호를 표시한다. 그러므로 한국어 통합 교재의 발음 내용에서 교재마다 음운 체계와 음운 규칙, 발음 기술 및 표기, 그리고 그 밖의 요소들이 동일하게 표시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제시되고 기술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발음 교육에 대한 표준화는 아니더라도 공통된 사항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그래서 발음에 대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통합 교재에 신는다면 학습자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 통합 교재로 한국어 수업 시간 내에 발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재에 발음 교육에 대한 내용을 교재에 실을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교사에게 짐 지우던 부분인 발음 설명과 연습 등을 교재에 실어서 교사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한국어 통합 교재 선정 및 분석 항목 설정 하기에 앞서, 기존 연구들이 분석 대상으로 삼은 한국어 통합 교재와 그 분석 항목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이를 표로 정리해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선행 연구의 분석 대상인 통합 교재와 분석 항목

연구자	통합 교재	분석 항목
김영선 (2006)	연세대 한국어 초급	1종 내용과 절차
윤정기 (2007)	경희대 한국어 초급 1, 2/중급 1, 2/고급 1, 2 서울대 한국어 1~4 성균관대 배우기 쉬운 한국어 1~6 서강대 서강 한국어 1AB/2AB/3AB/4AB/5AB 이화여대 말이 트이는 한국어 1~5	5종 31권 교육 방법, 교육 내용, 음운 규칙
오광근 (2008)	본문에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참고문헌에 제시함	20종 20권 자모의 용어 사용, 음가 제시 방식, 음절표 제시 방법
양명희 (2009)	연세 한국어 1, 이화여대 말이 트이는 한국어 1 서울대 한국어 1, 서강대 서강 한국어 1A 경희대 한국어 초급 1 성균관대 배우기 쉬운 한국어 1	6종 6권 자모의 수와 명칭, 발음 교육 순서와 발음 표시 방법
박기영 (2009)	서울대 한국어 1, 2 연세대 100시간 한국어 1, 2	2종 4권 발음 표시와 적용 단위
백소영 (2010)	서울대 한국어 1, 서강대 서강 한국어 1, 2 경희대 한국어 초급 1, 2	3종 7권 음운 규칙, 발음 제시 순서
허유라 박덕유 (2012)	경희대 한국어 초급 1, 2 고려대 재미있는 한국어 1, 2 인하대 인하 한국어 1, 2	3종 6권 발음 부분 여부, 단원 내용과 연관성 음운 변동 규칙 제시 순서, 음운 변동 규칙 설명
유현정 (2013)	밝히지 않았음	3종 발음교육 방법(노출, 연습, 설명)

위 표에서 제시한 한국어 통합 교재들을 살펴보면 주로 몇 개 대학에서 출간된 교재들이 주요 분석 대상이 되었으며 이 중에서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의 교재는 개정 전의 교재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통합 교재 중에서 최근에 개정된 교재인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의 한국어 교재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그러나 연세대에서 나온 『연세 한국어』 교재와 서강대의 『서강 한국어』 교재에는 발음 영역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3종의 한국어 통합 교재를 선정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교재는 다음과 같다 [17-19].

표 2. 분석 대상의 한국어 통합 교재

구분	통합 교재	기관
<가>	『재미있는 한국어 1~3』	고려대
<나>	『서울대 한국어 1A~3B』	서울대
<다>	『이화 한국어 1-1~1-2』	이화여대

위에 제시한 3종의 교재 모두 6단계까지 시리즈로 시중에 출판되어 있는 한국어 통합 교재로, 언어 수준별로 초급에서 고급까지 그 내용을 모두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교재를 검토한 결과, 3종 모두 3단계까지 음운 규칙의 제시나 설명이 끝나고 4단계부터는 대표 단어를 제시하고 음운 규칙을 반복해서 학습하였다. 그래서 4단계에 해당하는 4권부터는 각 교재의 주제와 내용에 맞는 단어 위주라서 각기 다르고 3권까지 음운 규칙이 잘 드러나므로 3권까지 비교하였다. 게다가 <다>교재는 1권에만 자모 체계와 음운 규칙이 나오고 2권부터는 발음 영역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부득이하게 <다>교재는 1-1권과 1-2권만 조사하였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연구들이 분석 항목에서 주로 다룬 내용은 자모와 음운 규칙임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앞선 연구들에서도 발음 내용 측면에서는 자모와 음운 규칙과 관련한 것이 많은데 한국어 발음 측면에서 혹은 한국어 발음 교육 측면에서 봤을 때를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학습자 대상이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한국어 학습자이므로 자모와 관련해서 자음과 모음의 제시 순서, 제시 방법 등을 다루어야 한다. 음운 규칙은 자모와 마찬가지로 제시 순서, 제시 방법을 고려해야 하며 아울러 음운 규칙의 발음 표기 방식, 음운 규칙의 메타언어 기술 등도 살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발음은 발음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와 같은 유창성과도 연계가 되어야 하므로 초분절 음소의 존재 여부, 말하기를 유도할 수 있는 문장이나 대화 제시 등이 요구된다. 통합 교재이므로 다른 언어 기능으로의 확장이나 학습자를 고려한 요소 즉, 난이도 조절, 단원 주제와의 관련성, 연습 문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분석 항목 및 그 내용을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분석 항목 및 세부 내용

분석 항목	세부 내용
음운 체계	자모의 수, 제시 순서, 제시 방법, 발음 표기 방식
음운 규칙	제시순서, 제시 방법, 발음 표기 방식, 음운 규칙의 설명 및 기술
기타 사항	문장이나 대화문 제시, 연습 문제, 다른 언어 기능과의 연계, 단원 주제와의 관련성

교재를 살펴보면 <가>교재와 <나>교재는 교재 구성표에서 발음을 제시할 만큼 발음 영역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다>교재는 교재 구성표에서 <말해 봅시다>라는 제목의 말하기 영역 안에 발음에 대해 무엇을 학습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교수요목을 알 수 있는 교재 구성표에서 발음 영역을 나타내는 것에도 차이가 있다. <다>의 교재는 발음 영역에서 다루는 대표 단어를 제시하는 것에 비해 <가>와 <나>교재는 ‘경음화’, ‘비음화’ 등과 같이 음운 규칙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다>교재는 언급하였듯이 <말해 봅시다>에서 본문 대화가 제시된 후에 발음 영역이 나온다. 그리고 다른 두 종의 교재는 언어권별로 번역 없이 통합 교재가 제작되었으나 <다>교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세 언어로 교재가 출간되었다. 조사 대상의 교재는 영어권 교재라서 발음 영역이 영어로 설명되어 있다. 그래서 발음 규칙 용어도 영어로 표기하고 설명도 영어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예시로 보여 주는 단어나 문장은 한글이며 발음 표기도 한글로 되어 있다.

2. 발음 내용의 분석 결과

앞 장에서 제시한 3종의 한국어 통합 교재를 대상으로 분석 항목들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이 장에서 다룬다. 분석 항목은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누었는데 먼저 음운 체계부터 살펴본다.

그 분석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 음운 체계의 분석 결과

분석항목	<가>교재	<나>교재	<다>교재	
음운 체계	자모수	모음21 자음19 (1과 전에)	모음21 자음19 (1과 전에)	모음21 자음19 (1과)
	제시 순서	모음10→모음11→ 자음14→자음5→ 받침14	모음6→자음10→ 모음4→자음4→자 음5→모음11→받침 16	모음10→자음14→ 모음11→자음5→받 침16
		모음10(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모음6(ㅏ ㅑ ㅓ ㅕ ㅗ ㅛ)	모음10(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모음11(ㅓ ㅕ ㅗ ㅛ ㅜ ㅛ ㅜ ㅠ ㅡ ㅣ) ㅓ ㅕ ㅗ ㅛ ㅜ ㅛ ㅜ ㅠ ㅡ ㅣ)	자음10(ㄱ ㄷ ㄹ ㄷ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ㅅ ㅈ ㅊ ㅋ ㆁ)	자음14(ㄱ ㄷ ㄹ ㄷ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ㅅ ㅈ ㅊ ㅋ ㆁ)
		자음14(ㄱ ㄷ ㄹ ㄷ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ㅅ ㅈ ㅊ ㅋ ㆁ)	모음4(ㅏ ㅑ ㅓ ㅕ) 자음4(ㄱ ㅈ ㅊ ㅋ) 자음5(ㄷ ㅁ ㅂ ㅅ ㅈ) 모음11(ㅓ ㅕ ㅗ ㅛ ㅜ ㅛ ㅜ ㅠ ㅡ ㅣ)	모음11(ㅓ ㅕ ㅗ ㅛ ㅜ ㅛ ㅜ ㅠ ㅡ ㅣ) ㅓ ㅕ ㅗ ㅛ ㅜ ㅛ ㅜ ㅠ ㅡ ㅣ)
자음5(ㄷ ㅁ ㅂ ㅅ ㅈ)	모음11(ㅓ ㅕ ㅗ ㅛ ㅜ ㅛ ㅜ ㅠ ㅡ ㅣ)	자음5(ㄷ ㅁ ㅂ ㅅ ㅈ)		

	받침(ㄱ/ㄴ/ㄷㅅ ㅈㅊㅌㅎ/ㄹ/ㅁ/ㅂ ㅍ/ㅇ)	겨내겨내겨내-) 받침(ㄱ/ㄴ/ㄷ ㅅㅈㅌㅈㅌㅎ/ㄹ/ ㅁ/ㅂㅍ/ㅇ)	받침(ㄱ/ㄴ/ㄷ/ㄷ ㅅㅈㅌㅈㅌㅎ/ㄹ/ ㅁ/ㅂㅍ/ㅇ)
제시 방법	음가, 획순, 자음의 명칭 ○ 음절표 × 사진 및 그림 × 청각 자료 ○	음가, 획순, 자음의 명칭 × 음절표 ○ 사진 및 그림 ○ 청각 자료 ○	음가, 획순, 자음의 명칭 ○ 음절표 × 사진 ×, 그림 ○ 청각 자료 ○
	역양 ○ (의문문 질문과 대답의 역양 의문사 의문문/예-아니요 의문문 역양 ‘-지요?’ 의 역양 평서문과 의문문 역양 격음, 경음, ‘ㅅ, ㅆ, ㅎ’ 첫 음절인 문장의 역양 의문사 의문문의 두 역양 ‘-줄 알다/모르다’ 의 역양 문장 중간에 위치한 구의 역양 강조의 역양)	역양 ○ (평서문과 의문문의 역양 청유문의 역양 의문사 있는/없는 의문문 역양 명령문의 역양 감탄문의 역양 ‘-거든요’ 의 역양 의문사 의문문의 두 역양)	역양 ×
음가 표기	국제음성기호 단모음(어[ɐ] 으[ɯ]) 이중모음(어[ja] 등)	국제음성기호 단모음(어[e] 으[i]) 이중모음(어[ya] 등)	국제음성기호 단모음(어[e] 으[i]) 이중모음(어[ya] 등)

세 교재 모두 ‘한글 익히기/배우기’라는 이름으로 한글 자음과 모음을 학습하고 있다. <가>교재와 <나>교재는 단원이 들어가기 전에 자모가 나오고 <다>교재는 1과에 자모 내용이 나와서 단원의 일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모 교육에서 세 교재의 공통점은 모음과 자모의 수가 동일하다는 점과 모음이 가장 먼저 나오고 받침이 마지막에 제시된다는 점이다. 모음 19개와 자음 21개로 세 교재 모두 자모의 수는 같으나 제시 순서가 다르게 나타났다. <가>교재와 <다>의 교재는 모음과 자음을 나누어서 각각 10개, 11개, 그리고 14개, 5개로 개수가 같게 나타나지만 받침의 수에 있어서 차이(14개, 16개)가 나타난다. <나>교재는 다른 두 교재와는 달리 모음을 6개, 4개, 11개 그리고 자음을 각각 10개, 4개, 5개로 세분화해서 제시하고 있다.

<가>와 <다>교재는 모음을 10개와 11개, 자음을 14개와 5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한글맞춤법』 4항, 자모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모음 10자와 자음

14자, 24자를 기본 자모로 하고 나머지 16자를 복합 자모로 나눈 것과 같다[20]. 그러나 <나>교재의 경우 모음 11자가 다른 두 교재와 다르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가>교재의 경우 받침 학습에서 <나>와 <다>교재와 비교했을 때 ‘ㄱ, ㅍ’ 2개가 없이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자모의 제시를 한글맞춤법의 규정에 맞게 제시할 것인지 기본 단모음 순서인 음운론적 특징에 따라 제시할 것인지는 교수와 학습의 효율성 측면(교수 가능성과 학습 용이성)에서 달라질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재(독학용)인지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강의용)인지에 따른 교재 목적과 학습 목적에 따른 요구 분석으로 그 선택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다음으로 제시 방법을 봤을 때, 세 교재 모두 자음과 모음에 있어서 그 음가와 획순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나>의 교재는 자모의 명칭이 없으나 <가>와 <다>의 교재는 자모의 명칭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다. 자모의 이름이 제시될 경우, 학습자에게 자모의 음가, 획순, 그리고 결합 등을 배우는 데 이름까지 가중하여 학습의 부담감을 준다. 반면에 자모의 이름은 한글의 고유 이름이므로 아는 것이 당연하며 나중에 음운 규칙 설명이나 오류를 수정할 때 명칭을 사용하면 편리하다.

세 교재 모두 청각 자료가 제시되어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나>교재는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를 이중모음이나 격음과 경음에 대한 도움말을 제공한다. <다>교재는 듣고 따라하기의 연습만 제시되고 있고 <가>교재는 발음 영역에 ‘ㄱ, ㅍ’, ‘ㄱ, ㅍ’ 등처럼 입모양 사진을 제공하여 시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모음과 자음에 대한 학습이 끝나면 이어서 배우는 것이 모음과 자음의 결합인 음절이다. 음절 학습은 음절에 대해서 설명하듯이 기술을 하거나 도표화 또는 음절 표로 시각화해서 제시한다. <가>교재는 음절 구성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해 기술을 하였고 <나>교재는 음절 표를 제공하였으며 <다>교재는 결합 과정을 도표화(예, ㅏ + ㅓ = 소)하였다. 음절의 네 유형을 기술로 끝내기보다는 쓰기 및 읽기 연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음절표를 제시하는 것도 좋으리라 보는데 발음상 구분 안 되는 음절자와 실제 글자로 활용되는 않는 음절자 등

학습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봐야 한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자음과 모음 교육인 음소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한국어의 특성상 소리의 높이, 강세 등으로 의미의 차이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 관점에서 한국어 억양의 의미와 기능이 있으며 문법적인 기능, 화용론적 기능, 그리고 사회언어학적 기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듯 한국어가 가지는 억양의 특성을 발음 영역에서 제시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어떤 것들이 주로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가>와 <나>교재는 억양을 다루고 있었으나 <다>교재에서는 억양에 관한 것이 전혀 없었다. <가>교재는 1-3권까지 45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아홉과에서 억양을 다루었고 <나>교재는 1-3권까지 총 52과 중 일곱과가 억양에 관한 내용이다.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의 문장 유형에 따른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억양을 대다수 다루고 그 밖에 동일한 문장을 표현하더라도 화자의 의도에 따라 억양이 달라지는 화용적인 기능을 하는 억양도 내용으로 나온다. 이는 개정 이전의 통합 교재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어의 억양은 평서문과 의문문에서 끝이 하강되는지 상승되는지에 따라 드러난다. 이런 억양의 문법적인 기능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문장 유형별로 억양 패턴을 제시하며 억양의 화용적인 기능은 의미별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억양 패턴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정확성과 유창성 모두를 갖추어야 하는데 억양과 같은 운소를 잘 발음한다면 유창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음과 모음의 음가를 어떻게 표기하는가를 살펴보았는데, 그 이유는 개정 이전의 통합 교재에서는 자모의 발음을 표기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에 자모의 음가 표기 방법을 조사한 결과, 세 교재 모두 국제음성기호로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세 가지를 표시하는 데 있어서 차이를 보였는데 그것은 단모음의 ‘ㅣ’와 ‘ㅡ’ 그리고 이중 모음의 표기이다. 이에 대해서 <나>와 <다>교재는 동일하게 단모음을 어[ɨ]으[ɪ]로, 이중모음은 아[ya] 등으로 표기하나 <가>교재

는 단모음을 어[ɹ] 으[w], 이중모음을 어[ja] 등으로 표기하여 달랐다.

다음은 음운 규칙에 관한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5. 음운 규칙의 분석 결과

분석항목		<가>교재	<나>교재	<다>교재
음운 규칙	제시 순서	연음 ㅎ발음(ㅎ약화, 격음화, ㅎ탈락) 비음화 유성음화 경음화 ㄴ첨가 유음화	연음 경음화 ㅎ탈락 비음화 유기음화 ㄴ첨가 유음화	비음화 연음 경음화 구개음화 격음화 ㅎ탈락 (ㄴ첨가, 유음화 없음)
	제시 방법	제시(문장)→설명(영어)→연습(문장/대화 읽기) 청각 자료 제공	준비(듣기)→규칙(설명, 읽기)→연습(듣고 말하기) 청각 자료 제공	설명(영어)→예시(여획2) 연역적 청각 자료 제공×
	발음 표기	한국어/없음	한국어	한국어
규칙 설명	영어 설명 있음	한국어+영어 설명 있음	영어 설명 있음	
	용어 사용(Δ) 교수요목12권 어, 3권 한국어	용어 사용(교수요목 O, 본문 X) 교수요목 영어+한국어	용어사용(교수요목 X, 본문 O) 교수요목 한국어	

음운 규칙은 먼저 어떠한 음운 규칙이 제시되며 어떤 순서로 제시되는지를 조사하였다. 세 교재를 비교해 봤을 때, 일단 세 교재 모두 음운 규칙의 제시 순서가 동일하지 않았다. <다>교재는 1권에서만 발음 영역이 나왔으며 음운 규칙 중에 'ㄴ첨가, 유음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가>와 <나>교재에서 나오지 않는 구개음화가 1-1권에 제시된다. 예시로 보인 단어를 보면 '같이', '해돋이'가 있는데 '같이'는 본문 대화에 나오지만 '해돋이'는 해당 과에 나오지 않는 단어이다. '같이'의 발음을 위해 구개음화 음운 규칙을 초급에서 설명하는 것은 교수 가능성과 학습 부담감 측면에서 봤을 때 타당성이 떨어져 보인다. <가>교재에는 다른 두 교재에서는 볼 수 없는 '유성음화'가 제시되고 있다. 이는 『표준발음법』에서 제시하지 않으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한글 표기는 같으나 음가가 달라지는 예를 먼저 보이고 설명하고 있다.

백소영(2010: 129)은 개정 전의 <나>교재(초급 단계)

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음운 규칙 제시 순서를 '중화→연음→경음화→비음화→ㅎ탈락→구개음화→유기음화→유음화'라고 하였다[11]. 개정 후의 <나>교재는 위 표에서 보듯이, '연음→경음화→ㅎ탈락→비음화→유기음화→ㄴ첨가→유음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달라진 점은 1-3권까지 경음화, 비음화의 경우 다른 음운 규칙들 사이에 여러 번 나오는 점과 구개음화가 음운 규칙으로 나오지 않는 점이다. 왜냐하면 구개음화는 몇몇 단어에 한해 한정되어 있어서 구개음화가 있는 단어가 나올 때 단어의 발음으로 학습하면 되므로 굳이 음운 규칙으로 다루어 학습자에게 학습 부담감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표준발음법』에 따른 한국어 발음 교육에서의 음운 규칙을 나타내보면 'ㅎ발음(격음화, 탈락)→연음→구개음화→비음화→유음화→모음동화→된소리→첨가(ㄴ첨가, 사잇소리)로 정리할 수 있다. 허유라·박덕유(2012: 381)에서는 제시한 음운 규칙의 순서는 '연음, 격음화, ㅎ탈락→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경음화, 사잇소리'이다[12]. 이 두 제시 순서를 보면 경음화가 뒤에 나오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경음화는 여러 현상으로 구분할 수 있고 초급 단계에 나오는 단어에서도 충분히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경음화는 연음에 이어서 혹은 격음화가 나온 후에 바로 나오는 게 적합하다. <가>교재와 <나>교재의 또 다른 차이점으로 경음화와 비음화의 여러 현상이 연속적으로 나오는지와 여러 단계에 걸쳐 산발적으로 나오는지가 달랐다. 동일한 음운 규칙으로 연속적으로 다루면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으나 초급 단계에 나오는 단어 중 경음화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다루고 여러 개를 분리하여 교수·학습의 나선형 모형으로 경음화를 다루는 것이 낫다.

제시 방법은 목표 음운 규칙이 있는 단어나 문장에, 한국어로 발음 기호를 명시하여 철자와 표기된 발음의 차이를 인지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음운 규칙을 설명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가>교재와 <다>교재는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기술하고 있으나 <나>교재는 한국어로 먼저 기술하고 아래에 영어로 함께 병기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가 연습으로, <다>교재는 연습 없이 해당 음운 규칙에 맞는 단어 2개가 제시될 뿐이다. <가>와

<나>교재는 연습으로 주어진 문장과 대화를 읽거나 듣고 따라하기를 한다. 그리고 음운 규칙의 발음 표기는 세 교재 모두 한국어로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연락[열락], 신라[실라]로 나타낸다.

<가>교재에 대하여 유현정(2013: 498-499)은 구체적인 설명 및 그림, 연습 문제 등을 함께 제시하여 발음 교육 내용의 비중이 높다고 하였다[16]. 그러나 음운 규칙의 기술을 봤을 때 통합 교재이고 언어권을 분리하지 않는 교재인데도 불구하고 영어로 음운 규칙을 설명하여 영어권 학습자 외에는 이 음운 규칙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청각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단순히 연습에서 문장 및 대화문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기 때문에 관련 음운 규칙의 발음(음가) 입력 없이 정확한 발음을 구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최근에 개정되어 나온 <나>교재가 청각 자료를 제공하는 점과 음운 규칙의 설명을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기술하고 이 규칙을 도식화하여 나타내고 있는 점으로, 발음 내용에 있어서 <가>교재보다는 <나>교재 교재가 더 구체적이고 발음에 대한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기타 사항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표 6. 기타 사항의 분석 결과

분석항목	<가>교재	<나>교재	<다>교재
문장 대화문	문장 혹은 대화문 제시	문장 혹은 대화문 제시	문장, 대화문 없음 (단어 제시)
연습 문제	하나 제시 읽기 형식	하나 제시 듣고 따라하기 형식	없음
기능 연계	없음	없음	없음
주제 연관	주제나 본문 대화에 나오는 발음 활용	주제나 본문 대화에 나오는 발음 활용	주제나 본문 대화에 나오는 발음 활용

기타 사항은 한국어 통합 교재의 특성상 요구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항목들이다.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이라는 한국어 교육의 목적에 맞게 대화문이나 다른 언어 기능으로의 확장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아울러 통합 교재이므로 발음 영역이라고 해서 해당 과의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에서 의도한 주제와 연관해서 나타나는지, 다른 언어 기능과 연계하기 위해 발음 연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연습으로 제시되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대화문이 제시되는지를 살펴보는 이유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단어나 문장으로 제시하기보다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기 때문에 대화문 형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대화문을 조사한 결과, <가>와 <나>교재는 대화문이 제시되고 있으나 <다>교재는 해당 발음의 대표적인 단어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연습의 경우 <다>교재는 연습 없이 음운 규칙의 설명과 사례 단어 2-3개 제시하는 것이 전부였다. 반면에 <가>와 <나>교재의 경우는 ‘연습하기’가 하나씩 제공되었다. <나>교재의 자모 교육에서 ‘연습하기’가 세 가지(듣기, 음절표 쓰기, 읽기 언어 기능)가 제공되었으나 이후 단원별로는 ‘연습하기’ 한 가지만 나타났다. <가>교재의 연습은 청각 자료 없이 문장이나 하나의 순서 교대(turn-taking)가 있는 대화를 읽는 형식이고 <나>교재는 문장과 대화문을 청각 자료를 듣고 따라 읽는 형식이다.

세 교재 모두 해당 과에 나오는 주제나 본문 대화에 나오는 단어, 문장, 그리고 대화문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다>교재는 주제나 본문 대화에 나오지 않는 단어를 다소 제시하기도 하였다. 통합 교재이므로 다른 영역과의 연계를 고려해서 발음 영역에 나오는 예문 및 내용은 해당 단원의 주제 및 학습한 내용에서 선정해야 한다.

3.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

앞에서 논의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현재 한국어 통합 교재의 발음 영역의 문제점을 분석 항목별로 정리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통합 교재의 발음 영역에 나오는 음운 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자모의 제시 순서가 교재마다 다르게 나타난 점, 음가, 획순, 자음의 명칭에 대한 기술 유무, 음가 표기가 다른 점, 그리고 억양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기술이 없는 점을 지적하였다. 먼저, 교재에 나오는 자모의 수는 동일하나 모음과 자음의 제시 순서가 다르게 나왔다. 자모의 제시 순서가 일정한 방식에 의해 정해져 있어야 학습자들의 혼동이 없다. 아울러 교재마다 자모의 제시 순서가 다르다면 교수자는 교육 내용인 교

제에 따라 자모의 제시 순서를 바꾸어서 가르쳐야 한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자모의 제시 순서에 대한 표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글맞춤법의 규정에 따라 혹은 기본 단모음 순서인 음운론적 특징에 따라 제시할 것인지를 교수 가능성과 학습 용이성에 맞게 고려하여서 정해야 한다. 학습자 요구 조사를 실시하여 학습 용이성과 학습자들의 여러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한글맞춤법의 규정에 따라 혹은 기본 단모음 순서인 음운론적 특징에 따라 수업의 한 후에 그 효율성을 알아보아야 한다. 또한 교재 목적과 학습 목적에 따른 학습자의 관심과 요구도 참고하도록 한다. 교수의 편이성을 생각할 경우에는 모음을 모두 배우고 자음을 모두 학습하는 것이 좋으나 학습자의 입장을 생각하였을 경우에는 모음과 자음을 세분화하여 가르치는 것이 나올 수 있다.

음운 체계의 제시 방법에서 억양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기술이 있는 교재가 있는 반면에 없는 교재도 있었다. 의사소통 관점과 한국어 억양의 기능 관점을 고려했을 때 억양의 기능과 의미를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개선 방향으로는 억양의 문법적인 기능, 화용론적 기능 그리고 사회언어학적 기능을 중심으로 의사소통에 유용하고 언어 숙달도에 맞는 억양에 대한 의미와 그에 적절한 기술을 해야 한다. 분석 대상의 교재에서는 음가 표기가 국제음성기호로 표시하고 있었으나 아직 단모음 ‘ㄱ’, ‘ㄷ’와 이중모음의 표기는 아직 동일하지 않았다. 개선 방향으로, 세 가지 모음에 대한 표기 합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자모의 음가, 획순, 자음의 명칭을 교재에 나타낼 것인지 여부가 교재 분석을 통해 문제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논의, 즉 필요성, 내용, 방법을 생각하고 교재에 반영해야 한다.

둘째, 발음 내용 중, 음운 규칙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음운 규칙의 제시 순서가 교재마다 다르다는 점, 제시 방법에서 음운 규칙의 설명을 외국어로 하는 점, 그리고 규칙 설명 시 발음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점이다. 개선 방향으로 먼저, 음운 체계의 제시 순서처럼 음운 규칙의 제시 순서도 교재마다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제시 순서를 정해야 한다. 즉 음운 규칙의 제시 순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언어 숙달도에 맞

게 어떤 음운 규칙을 제시할 것인지가 선행되어야 제시 순서가 이에 적합하게 정해질 수 있다. 하나의 음운 규칙을 한 번에 학습하는 것보다 경음화, 비음화처럼 여러 현상을 구분하여 다루는 것이 좋다.

음운 규칙을 설명할 때에 외국어로 설명하는 점과 용어를 사용하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어로 설명할 경우에는 모든 언어로 번역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한국어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음운 규칙의 메타언어로 무엇을, 어디까지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메타언어는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대상어에 대한 기술 및 설명하는 매개 언어이므로[21] 음운 규칙을 학습자에게 설명할 시에 공통되고 필수적인 말을 중심으로 기술해야 한다. 초급이므로 음운 규칙을 설명할 때 음운 규칙에 대한 용어의 사용은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셋째, 발음 내용의 기타 사항 중에서 통합 교재에 나오는 발음 사례를 단어로 제시하는 점, 다양한 연습문제가 제시되지 않는 점, 그리고 다른 언어 기능으로의 연계가 없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발음 내용에서 발음을 위한 예로 제시할 경우에 단어로 제시하기보다 교재에 나오는 문장을 제시하거나 대화문으로 나타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발음을 연습하기 위한 다양한 연습 문제, 활동 등을 제시하고 이를 확장해서 말하기, 읽기, 듣기의 다른 언어 기능과 연계해서 발음 연습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기타 사항이므로 음운 체계와 음운 규칙과는 달리 필수적이거나 모든 것을 다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통합 교재이며 교재에서 발음 영역을 별도로 마련한 경우에는 음운 규칙에 따라 다양한 연습 문제와 다른 언어 기능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야 된다.

III. 결론

본고는 한국어 통합 교재를 대상으로 발음 교육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교재에 나오는 음운 체계, 음운 규칙, 발음 기술 및 표기, 그리고 발음 연습 등의 발음 향

목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이 분석 결과를 통해 드러난 발음 내용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로 알 수 있는 발음 내용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내었다. 음운 규칙에서는 모음과 자음의 제시 순서에 대한 표준안과 역양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기술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음운 규칙에서는 음운 규칙의 제시 순서, 음운 규칙 관련 용어와 그 설명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기타 사항에서는 발음의 예로 문장이나 대화문으로 제시하고 발음 연습을 위해 다양한 연습과 다른 언어 기능과 연계성을 가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어 통합 교재에 나오는 발음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것으로 발음 교육을 위한 교수방법을 논하지 않았으나 통합 교재의 발음 내용을 면밀하게 다루었다. 그러므로 향후 한국어 통합 교재를 개발할 시에 발음 내용에 대한 기초적 자료가 되리라 본다.

참 고 문 헌

[1] 한송화, 정희정, 심혜령, 원미진, 김현정, 황용주, 구지민,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4단계)*,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2015.
 [2] 양명희, 이선웅, 고희희, 이성도, 이지용, 김지연, 박미은, 이나래, *한국어 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4단계)*,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2015.
 [3] 김상수, 송향근,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동향 분석,” *한국어학*, 제33집, pp.155-183, 2006.
 [4] 정명숙,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의 성과와 과제,” *이중언어학*, 제47집, pp.423-451, 2011.
 [5] 최정순, “한국어 발음 교육의 현황과 과제,” *언어와 문화*, 제8권, 제2호, pp.295-324, 2012.
 [6] 김은애, 박기영, 박혜진, 진문이, “한국어 억양 교육을 위한 방법론적 고찰,” *한국어교육*, 제19권, 제2호, pp.1-31, 2008.
 [7] 박정은, 이주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재의 분석과 개선 방향 연구,” *국어국문학*, 제150집, pp.565-602, 2008.

[8] 김현아, “한국어 발음 교재 개선 방향 연구: 영어·프랑스어 발음 교재와의 비교를 통해,” *새국어교육*, 제104집, pp.295-325, 2015.
 [9] 김영선, “한국어 교육 발음 교재의 구성 방식과 내용,” *우리말연구*, 제18집, pp.237-260, 2006.
 [10] 박기영, “국어 음운론 지식과 한국어 발음 교육의 상관성에 대하여: 모음, 자음의 기술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133집, pp.467-489, 2007.
 [11] 백소영, “한국어 통합 교재를 통한 발음 교육 고찰,” *시학과 언어학*, 제18집, pp.119-138, 2010.
 [12] 허유라, 박덕유, “한국어 초급 교재에서의 발음 교육 방안 연구: 음운 변동 규칙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제90집, pp.363-388, 2012.
 [13] 윤정기, “효율적인 발음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재 분석,” *어문연구*, 제69집, pp.37-59, 2011.
 [14] 오광근, “기초 단계의 한국어 자모 교육: 통합 교재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53집, pp.181-208, 2008.
 [15] 양명희,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글 자모와 발음 교육 방법에 대하여,” *어문논집*, 제41집, pp.5-27, 2009.
 [16] 유현정, “한국어 교재의 발음교육 방안 연구: 발음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제32집, pp.489-511, 2013.
 [17] 고려대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재미있는 한국어 1-3*, 교보문고, 2010.
 [18] 서울대 언어교육원, *서울대 한국어 1A-3B*, (주)투판즈, 2013~2015.
 [19] 이화여대 언어교육원, *이화 한국어 1~1-1~2*,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0~2012.
 [20] <http://www.korean.go.kr/>
 [21] 박은하, “한국어 교재와 교수 언어에서의 메타언어 쓰임: 피동과 간접인용의 의미 기술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제107집, pp.433-489, 2016.

저 자 소 개

박 은 하(Eunha Park)

정회원



- 1996년 2월 : 대구대학교 영어교육과(문학사)
 - 2003년 2월 : 대구대학교 영어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08년 8월 : 대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문학박사)
 - 2018년 2월 : 배재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문학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대구대학교 시간강사
- <관심분야> : 사회언어학, 한국어교육